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서비스 체제

김 용 근*

〈목 차〉

Ⅰ. 서론
Ⅱ. 산업정보서비스의 실제
1. 설립기관중심의 정보서비스 체제
2. 중소기업중심의 정보서비스 체제
Ⅲ. 현장중심의 정보서비스 체제
1.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2. 기계·재료기술정보센터
Ⅳ. 결론
Abstract

Ⅰ. 서 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제도에는 금융, 조세, 기술, 기술정보, 인력양성과 공급, 목적별 종합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되고 있다. 또한 이들 사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의 기관에다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가운데 기술지원이나 기술정보의 제공이 주된 업무로 되어있는 기관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다만 지원기관의 활동영역 속에 산업정보를 관련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업무가 포함되고 있는 정도이다.

주요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산업정보의 제공에 초점을 맞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추면서 알아 본다.[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춘 국내외의 전문가를 산업현장에 파견하고 지도를 하여 문제해결을 지원하여 주는 지도사업과 산업현장의 기술자와 경영자를 훈련시키는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정보의 수집과 배포사업은 자료실의 업무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에 전달시키며 또한 중소기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산업체에서 입수할 수 있게 하고있다. 국립공업시험원은 각 지역마다 지방공업기술원을 두고 공업에 관한 시험, 분석, 감정의 기술서비스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보유설비의 이용지원, 현장애로기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교육 및 평가 등의 여러 사업을 수행하며 기술의 제품화, 기업화,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책 수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정책의 수립과 기술수요 조사사업, 개발자금의 관리,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시험조사, 표준 검교정 및 기술감리, 생산기술 및 품질인증 관련 국제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중소기업의 자동화 사업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화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수탁연구 및 각종 기술지원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정조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기업에는 조세, 금융, 연구개발 사업참여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산업 전분야를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기술지원 업무는 산업정보를 수집, 처리하여 산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식보다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기술지도를 해주어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도 다양한 형태의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관리 업무는 지원기관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제공하는 일이다.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동 공단, 1998. 2)에서 소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주요사업을 간추린 것이다.

자료실에는 지원기관 자체에서 생산된 여러 자료들을 함께 소장하고 있으나 자료량은 빈약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활동영역이 다양한 만큼 기술정보서비스 부문에서도 다른 지원기관과는 차이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징적으로는 '중소기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산업체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정보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정보은행에는 기업/기관, 자금/입지, 경제/산업, 기술/규격/문헌, 인력/연수/전시회, 법률/제도 등 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망라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또한 기술, 경영, 창업 등에 중점을 둔 세 종류의 정기간행물과 중소기업 활동에 관련된 시책, 제도 등을 포함하는 경영분야,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을 수록하는 기술분야의 단행본도 여러종류가 간행되고 있다.

산업분야별 연합회 또는 중앙회 조직의 주요 사업에는 대부분 산업정보서비스가 포함되고 있다. 가령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종합전산망인 EAIK-INS의 운영, '전자산업종합정보', '전자산업경기동향', '전자산업통계', '전자부품총람' 등의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며, 전자산업 관련 정책정보, 기술정보 및 통계정보, 국내외 투자환경과 시장정보, 기업체 및 바이어정보 등을 산업체에 제공하고 있다.[2)]

한국기계공업진흥회는 주요 사업으로 기술개발 지원, 관세 감면 및 수입승인, 정책자금 지원,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기계산업 정보제공, 국제협력 및 기술촉진, 국산기계류 홍보, 기능인력 양성, 기계류 보증사업 등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정기간행물을 생산하며, 기계산업의 장기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국산 기계 보유 실태 조사, 해외 산업정보의 안내를 수록하는 부정기 간행물도 간행하고 있다. 또한 자료실을 운영하며 기계산업정보망(KOAMI-NET)을 개설하고 산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이텔 8. 기업/무역/농수산 34305(한국기계공업진흥회)로 접속이 가능하다. 특히 기계 산업계의 생산현장에서 실제로 응용 가능한 선진 각국의 생산기반 기술 및 특허기술을 입수하여 이를 정리한 '생산기술정보집'을 연간5회 발간하고 있다.[3)]

---

2) 중소기업공단,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252쪽
http://www. eiak. org

3) http://www. koami. or. kr/kami into frame. html
중소기업진흥공단, 앞의 책, 231쪽.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산업분야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정보사업을 위해서는 TEXIS(Textile Information Services)의 운영, 섬유정보 관련 간행물의 발간, 자료실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정보유통시스템인 TEXIS는 하이텔에서 KOFOTI(한국섬유산업연합회)로 연결하면 된다. 문헌정보, 통계정보, 기사속보, 화상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홈페이지에는 패션정보를 중심으로 한 화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4]

산업분야별 연합회는 공통적으로 업종별 관심분야, 특정 기술과 상품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성 분석, 미래 예측 등을 산업현장에서 직접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정보 마인드가 약한 중소기업에서 산업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수집하는데 투자할 여유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 동일한 업종간에도 경쟁심 때문에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분야별 중앙회가 정보유통업무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지원기관 중에서 산업체에 산업정보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산업기술정보원이 유일하다. 산업기술정보원은 설립목적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즉 국내외 산업, 무역 및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 처리, 보급하고 산업간 및 지역간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외 산업, 무역,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 처리 및 보급, 산업기술 데이타베이스의 제작 및 데이타뱅크의 운영,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의 조사, 분석 및 연구, 정보의 수집, 처리, 보급에 관한 표준화 연구 및 기술개발, 정보의 이용촉진을 위한 지도 및 인력양성, 산업기술 정보망 및 지역정보 보급체제의 구축, 정보수요의 조사, 분석 및 정부의 정보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를 하는 것이다.[5]

산업기술정보원은 오랜 세월 우리나라 산업체에 대한 정보서비스기관으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정보수용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 크게

4) 김정희, "섬유산업의 정보화 현황과 과제", **업종별 산업정보화 추진전략 세미나** (산업기술정보원, 1996. 6) 59-99쪽.

5) 산업기술정보원, **1997 정보서비스 이용안내** (산업기술정보원, 1997) http://www. kiniti. re. kr

고려되지 않는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첫째 산업체 종사자들이 외국어의 이해와 수준 높은 기술문헌에 대한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어에 대한 번역서비스와 정보조사와 정보분석서비스가 있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서비스는 아니다. 둘째 어떤 주제에 대한 여러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종합할 능력이 산업체에 있다는 토대아래 정보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산업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서비스는 데이타베이스의 온라인 검색으로 나타나고 있다.[6] 중소기업 이용자들이 정보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데이타베이스의 종류가 많아져야 될 것이다. 단순히 우리말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환경에 응용이 가능한 외국의 기술과 경영정보를 선정하고 정리한 데이타베이스가 여러 종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용자들이 정보검색에 대한 이해, 데이타베이스의 종류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정보검색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이용자들이 교육기회를 가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정보검색 프로그램을 이용자 중심으로 짜고 이용 가능한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해설을 여러 형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온라인 정보검색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서지사항과 초록정보에 그치고 있다. 원문헌의 입수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원문입수를 위한 여러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기술정보원의 활동으로 산업정보서비스에 많은 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정보서비스는 현장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라기 보다는 산업기술정보원이 생산한 정보제품을 이용자들이 구입하여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이다. '마춤제품'의 생산이 아니고 기성품을 구입하도록 판매전략을 구축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잘못된 관찰이 될 것인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되어 만들어 내는 정보기술의 확산은 정보서비스 영역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원거리에 소재하는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고 필요한 원문헌을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정보관리 활동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가능하며 이미 많은 이용자들이 정보기술이 바탕이 된 정보의 접근과 입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 특히 산업정보의 유용성을 크게 인식

6) 산업기술정보원, "중소기업, 정보이용도 높아져" **KINITI 뉴스 52호** (1998.2) 1쪽.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정보기술이 만들어내는 정보의 입수 보다는 입수 정보의 적합성, 적용성, 실용성 등 그들의 산업현장에 얼마나 응용 가능한지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 결국 이용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처리하여 제공해 주는 즉 온라인 정보검색 이전의 정보봉사 형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요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에는 항상 정보기술에 근거한 정보유통체제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별 전문단체가 회원 산업체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방안에도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될 원시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수집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도 구상도 들어있지 않다.[7]

적어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정보기술에 근거해 고찰 한다면 정보기술에만 크게 의존하여 입수, 처리, 배포되는 정보만으로는 중소기업 정보이용자에게는 실제 활용에 있어서 많은 한계요소가 있는 것이다.

정보관리 부문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은 정보의 수집, 처리, 배포 등 정보유통 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적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자적으로 축적되고 배포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더구나 아직은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타베이스 유형의 자료는 외국에서 제작된 것들이 많다. 이러한 문헌에 담겨져 있는 기술사항은 우리의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응용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어떤 기술에 대하여 응용과 적용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아무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외국기술을 이용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모험이 따르는 것이다. 산업체에서의 신기술 도입이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지원기관에 따라 정보서비스 업무의 중요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그것을 유형화시켜 살펴 본다. 산업정보서비스 기관으로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어 산업현장에 밀착된 정보서비스를 수행하는 두 체제의 기능을 분석한다. 산업정보서비스 체제의 구상에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

7) 산업기술정보원, **업종별 산업정보화 추진전략 세미나** (산업기술정보원, 1996. 6). 이 자료에는 전자, 기계 및 섬유산업의 산업정보화 방안을 수록하고 있다.

II. 산업정보서비스의 실제

개별 산업체의 정보관리에 대한 자세의 변화가 없이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도 크게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일이다. 산업정보서비스를 언급하는 여러 부분에서 중소기업은 정보관리를 전담하는 조직도 인력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산업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보이용을 하도록 할 것인지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온 것이다. 산업지원기관들이 그들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산업체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 가장 효과를 가져올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정책을 펴고 있다. 산업분야별 전문단체가 산업정보유통시스템의 하부구조로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이들은 동일 또는 유사정보를 요구하고 활용하는 기업체들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그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기업체의 정보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정보서비스 또한 특별한 업무로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8]

산업지원기관들은 그들의 주요 업무활동과 더불어 산업체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살펴 본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하나는 산업지원기관들은 각자 부과된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이용하면서, 여기에다 업무수행 결과 생산되는 여러 유형의 자료를 주요 장서로 삼고 있는 조직이다. 물론 이러한 기관에서도 여러 형식의 정보서비스를 산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 있게도 준비해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기관 자체의 이용에 더 크게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지원기관이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산업정보를 비교적 충실하게 수집하고 그것을 회원 산업체의 이용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기관으로는 산업분야별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전자의 기관과는 업무수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비하여 정보서비스 방식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떤 산업지원기관도 정보서비스 활동이 약하게 이루어지고는

8) 산업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정보관리기능의 불충실, 산업분야별 협회, 조합의 정보수집 및 조사 기능의 미비 등에 대한 지적이 많다. '경제를 살리자' 시리즈 중 '각종 조합 이권만 챙긴다', 동아일보(1993. 2. 20. 2면)

산업체에 대한 지원업무가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1. 설립기관 중심의 정보서비스 체제

1) 중소기업진흥공단[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은 경영 및 기술정보, 중소기업 정책, 자금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경영전반에 걸친 사항이다. 안내자료에서도 정보제공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필요한 각종 국내외 경영 및 기술정보, 중소기업 시책, 자금지원 내용 등을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편집한 간행물을 직접 발간, 배포하고 자료실 운영 및 개별 정보제공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정보제공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 본다.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으로는 세 가지 종류의 월간 자료를 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비롯하여 창업자, 창업준비자 또는 일반인들을 독자로 겨냥하는 전문 경영정보지로 '기업나라'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술직 및 기술관련자를 대상으로 최신정보 수집과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TECH TIMES'라는 기술정보지를 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예비 창업자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창업관련 각종 정보 및 기획 취재물을 수록하는 '창업 파트너'라는 창업정보지를 간행하고 있다.

단행본 발간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시의성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간행한다. 중소기업에 관련된 시책 또는 제도 등이 소개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보험 산책', '작은 일류'등의 단행본이 간행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통기술, 애로기술, 전문기술 등을 수록하는 중소기업 전문기술을 안내하는 자료이다. 지금까지 간행된 기술관련 단행본으로는 'CNC 프로그램 실무', '자동고압조형의 기초와 실무', '저비용 고효율 생산시스템' 등이 있다.

---

9)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77-78쪽.
http://smdb. smipc. or. kr

자료실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요구하는 유형의 정보를 기업정보회원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원문헌을 제공하는 '개별정보제공사업'을 하고 있다. 제공하는 정보에는 경영관리정보, 생산기술정보, 설비와 상품정보, 외국 규격정보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영관리에 관련된 정보요구가 많으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제도 안내, 창업, 입지관련 자료 등의 요구도 비교적 많다. '개별정보제공사업'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는 '중소기업은행'(http://smdb. smipc. or.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 있다. 자료실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도서,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각국의 규격, 상품카타로그 등을 수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실이 수집하는 자료들은 회원기업인 중소기업 종사들을 주된 이용자로 삼기 보다는 공단 종사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많다.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산업분야별 경영 및 기술지도 업무에 필요한 자료이다.

출판사업처에서는 공단에서 발간하는 여러 종류의 간행물과 자료를 자료회원에 가입한 중소기업체, 중소기업 관련기관, 단체, 창업예비자 등에게 매월 제공하는 '자료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공하는 간행물에는 기업나라, 테크타임즈, 단행본 등 연간 약 30권 내외의 자료가 전달된다.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주요 사항을 항목별로 살펴 본다.[10]

기업/기관정보 : 중소기업체 현황정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체는 업체명, 대표자명, 유형별, 규모별, 설립일자별, 지역별, 상품명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자금/입지정보 : 각 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공공자금정보, 신용보증기금에서 서비스하는 신용정보 안내, 은행, 보험, 리스정보,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단지 연계정보, 입지정보, 전국 10여개 창업보육센터의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경제/산업정보 : 업종별 국내 경제통계정보, 창업관련 통계 및 산업은행 조사부에서 제공하는 경기전망 정보 등이 포함된다.

기술/규격/문헌 : 신기술 정보, 중진공 문헌정보, 의장/특허정보, 국립중앙도서관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인력/연수/전시회 정보와 법률/제도 정보가 있다.

---

10) http://smdb. smipc. or. kr/sment/index html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에는 상호접속망으로 열린정부, 중소기업관, 사이버마켓몰, cyber-koex, 아롬길, INNO-NET 등과 링크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많은 정보원과 링크시킬 필요가 있다. 아롬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11]

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은 이 기관의 설립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가 생산기술부문의 종합, 기획, 관리 및 평가기능의 수행과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타개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기술 수요조사에서 기업화 지원까지의 종합적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제조업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업무는 국제 기술협력을 통한 생산기술의 이전 및 정보수집, 기업 공통애로기술 및 기반기술 개발지원, 산업현장 기술의 개발 및 지원 등 생산기술에 관련된 전반적인 과제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실을 운영하며 소장자료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자료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 국내외 각종 학술지, 기술보고서 등 다수의 전문기술정보를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학술지는 논문 초록까지 수록하여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공학관계 전문학술지는 내용목차를 데이타베이스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것은 아니다. 자료수집에서나 처리과정에서 중소기업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는 없는 것이다. 연구원은 월간으로 생산기술, 외국인증정보, 주조단신 등 세 종류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연구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3)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

과학기술분야 도서관은 자료, 인력, 정보서비스의 종류와 수준 등 여러 조건들로 보아 도서관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다. 이들 전문도서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주제분야를 산업체에서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11) http://www. kitech. re. kr/frame html

마련된다면 가장 유용한 산업정보 제공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12]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은 소속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설립목적이기 때문에 산업체에 대한 정보지원의 필요성이나 의무감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 산업기술정보유통체제의 구축에 관련된 계획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소 도서관이 산업체에 대한 정보서비스기관으로 항상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전문도서관을 외부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지를 알아 본다.

전문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의 관찰이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전문도서관은 산업체에 대한 정보지원을 할 의무도 없고 정보지원을 한다고 해도 업무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문도서관의 업무내용에 외부기관에 대한 정보지원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전문도서관의 정보지원 업무중에서 산업체에 대한 기술정보지원을 위해 지원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13] 또한 전문도서관 정보봉사가 산업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말하고 있다. '기술정보의 출판과 배포에 관해서는 신착자료속보나 기술동향지, 분석지,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대부분의 전문도서관이 출판, 배포하고 있으나 산업계가 배포기관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낮고, 대부분 관련기관이나 도서관 등의 정보제공기관에 배포하고 있다.'[14] 연구소 도서관의 외부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사례를 본다. '대부분의 출연연구소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은 소내 근무 연구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관련분야의 산학연의 종사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외부인들의 자료이용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몇 개 소수의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방문 열람에 국한하고 있으며 그나마 특정 자료에 한해서만 복사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기관도 있어 외부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15]

산업계의 전문도서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수요자 지향적 시스템의 결여로 중앙정보센터의 경우는 모든 이용자가 이용하는 반면 전문정보센터의 산업체 이용빈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고 연구소 자체에서만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16]

---

12) 김홍렬,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의 산업체 정보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21권 2호(1995. 6), 88-110쪽.

13) 김홍렬, 앞의 글, 99쪽.

14) 김홍렬, 앞의 글, 96쪽.

15) 조현양, "연구단지 전문도서관의 기술정보 활동",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1995) 153-175쪽.

2. 중소기업 중심의 정보서비스 체제

정부의 산업분야별 정보화산업에 대한 정책에는 협회와 조합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업종별 협회, 조합 등을 민간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인프라의 기능을 갖도록 유도한다. 종래의 산업별 협회, 협동조합 등은 정부의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규제기능 위주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이들 산업별 지원조직을 인력, 정보, 표준 등의 기술인프라 제공기관으로 전환하여 특히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와 기술공급자인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공급을 연결하여 주도록 기술중개기능을 강화한다'[17]는 것이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산업기술정보 및 경영·경제정보를 수집하는데 투자할 여유가 없다. 또한 동일한 업종간에도 정보의 교환이 경쟁심 때문에 소통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요구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업종별 단체가 지속적인 정보공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협회나 조합이 업종별 정보를 수집, 처리하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업종고유의 기술, 상품, 시장, 업체 등에 관한 정보를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고 유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업종별 단체와 산업체간에 정보공급과 활용에 필요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각종 업종별 정보가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유통될 수 있는 것이다.

업종별 고유정보는 품질향상,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기술정보, 특허정보 등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제정보, 상품정보, 시장정보 또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정보, 장비정보 등 업계에 특화된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원시정보이다. 이 정보들을 수집, 처리하여 다시 산업체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여 정보분석이 필요한 정보는 업종별 관심분야, 구체적 단위사업 해결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분석자료 등이 될 것이다. 특정 기술과 상품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성 분석, 미래예측 등 기업현장에서 직접 적용,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 등은 전문정보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이 맡게 될 것이다. 또한 업종별 정부

1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96 산업기술백서**, (동 협회, 1996. 12) 128-140쪽.
17) 백만기,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의 의미와 주요내용", **산업정보화와 지역경제발전** (산업기술정보원, 1996. 1) 11-29쪽.

정책, 지원제도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세계 경제동향 및 규정에 관한 안내, 대책수립 등에 관한 정보는 업종별 발간자료에 수록한다는 것이다.[18]

업종별 정보지원체제는 동종업체가 기술개발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동으로 입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기관과 업종별 단체, 정부기관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는 것이다. 업종별 단체의 기능 활성화는 관련 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고 일반 정보관리기관이 수행하기 힘든 업종별 고유정보의 수집과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별 전문단체 중에서 정보지원 업무를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세 분야의 현행 시스템을 알아 본다.

1)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주요 사업에 '조사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전자산업의 생산, 시판,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급 등에 관한 동향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데이타베이스화하고 있다. 생산 및 시판동향 자료는 진흥회의 회원회사 및 비회원회사를 대상으로 통계조사표를 발송하여 원시 데이타를 입수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데이타는 관세청 자료를 입수하여 이용하고 있다.[19]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종합전산망 EIAK-NET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정보의 종류를 알아 본다.

정책정보 : 전자산업의 각종 지원, 육성에 관한 정책

통계정보 : 품목별, 연도별 생산, 시판 및 국가별 수출입 통계

전자산업동향 : 전자산업의 품목별 수급, 기술동향

해외투자동향 : 지역별, 품목별 해외 투자 동향

통상정보 : 국가별 통상정책 및 수입규제 관련 정보

---

18) 서한수, "업종별 산업정보화 과제와 추진방안", **업종별 산업정보화 추진전략 세미나**, (산업기술정보원, 1996, 7) 3-12쪽.

19)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자료는 다음의 정보원에서 얻을 수 있다.
- http://www. eiak. org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252쪽.
- 조영교, "전자 산업계의 정보체공시스템 구축계획 및 과제", **업종별 산업정보화 추진계획세미나**, (산업기술정보원, 1996, 6) 13-34쪽.

부품재료정보 : 국산부품의 품목별 규격, 특성사양
특허정보 : 전자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정보
기업체정보 : 품목별, 지역별 업체 현황
자금정보 :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전시정보 : 국내외 전자관련 전시회의 일정 및 장소
진흥회정보 : 진흥회의 주요 간행물, 문헌 및 행사

위의 정보군에서 자세하게 조사하려면 Telnet 210. 114. 131. 10으로 접속하면 된다. 진흥회는 자료회원을 두고 간행물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산업', '전자전기산업 경기동향', '전자산업동향 및 전망' 등의 간행물을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최신의 정보는 온라인으로 종합전산망 정보를 이용하고 분석된 자료는 출판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2) 한국기계공업진흥회 20)

한국기계공업진흥회는 업종별 정보화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상품, 시장 등 관련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지 않아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둘째 기업이 독자적으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중복투자로 비효율적이다. 셋째 기업을 지원하는 업종별 단체간에도 정보화를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하여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가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종업계의 정보를 수집, 가공, 데이타베이스화하여 기술개발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업계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업종별 정보화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흥회가 기계업종의 정보화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총괄단체에서 소규모단체의 정보를 취합, 가공하여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다. 업종단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전문정보는 국내외의 정보기관의 정보를 이용한다. 또한 업종내부 및 타업종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표준화, 규격화 작업도 실시하여 다른 업종정보망이 구축되면 종합산업정보망과의 연계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

20) http://www. koami. or. kr/into/kami into frame html
양정환, "기계산업의 정보화 구축방안", **업종별 산업정보화 추진전략 세미나**, (산업기술정보원, 1996, 6) 35-58쪽.

현재 웹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계산업정보는 기계산업 업체정보, 기계류 품목정보, 무역정보, 생산기반 기술정보(기술정보, 특허정보, 특집정보), 자본재 고시품목, 신규개발 기술정보 등이다.

진흥회가 생산하는 정기간행물은 기계공업, 기계산업편람, 기계공업체 명감, 기계산업경기동향, 기계산업무역통계 등이 있으며, 기계업계의 생산현장에서 실제로 응용가능한 선진 각국의 생산기반 기술 및 특허기술을 입수하여 이를 정리하여 연간 5회 생산기술정보집을 발간하고 있다. 부정기 간행물로는 기계산업 발전전략, 국산기계 보유 실태조사, 기계산업의 장기발전 비전, 해외산업정보 등이 간행되고 있다.

진흥회는 자료실을 운영하며 여기에는 국내 기계산업 관련 각종 자료 및 미국, 일본 등 해외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진흥회는 기계산업정보망(KOAMI-NET)을 운영하며 하이텔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기계산업 생산품목, 기계산업 국내외 통계, 기계산업 정책자료(법규, 시책, 경영·기술정보)등 이다.

3)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1)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정보의 유통을 위하여 93년 6월에 연합회의 조직으로 섬유정보센터를 개설하고 섬유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데이타베이스 개발과 산업계에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섬유정보서비스(TEXIS, Textile Information Service)라는 섬유정보통신망을 공중망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다. 95년 6월부터 하이텔을 이용하여 섬유산업정보를 검색, 이용할 수 있다. TEXIS서비스는 섬유업계, 관련기관, 학계, 연구소 등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섬유정보센터는 섬유산업분야의 산업정보를 산업체에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망인 TEXIS 운영, 국내외 섬유정보의 수집, 제공, 섬유산업 정보화 지원, 섬유정보 간행물 발간, 섬유통계 생산, 자료실 운영 등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다. '섬유산업 통계월보'등 섬유관련 통계자료의 생산과 국내외의 섬유분야 기술과 경영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채용할 가능성이 큰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주간으로 간행하는

21) 섬유정보센터, TEXIS 이용 안내서
김정회, "섬유산업의 정보화 현황과 과제", **업종별 산업정보화 추진전략 세미나**, (산업기술정보원, 1996, 6) 59-99쪽.

'섬유뉴스'와 계간인 '섬유기술정보'가 섬유산업분야의 기술 및 경영에 관련된 기술현황분석정보라고 할 수 있다. '섬유뉴스'에는 섬유분야의 해외동향, 국내동향 및 섬유산업분야 소식 등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정보소스는 외국의 섬유신문, 통신, 국내의 섬유신문 등 시사성 있는 자료로부터 기사를 발췌하는 것이다. '섬유기술정보'는 섬유산업분야의 약 300여종의 국내외 정기간행물에서 우리 중소섬유업체에 적합한 기술정보를 선정,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원문헌을 요약하고 외국문헌은 번역해 수록하고 있다. 이 작업이 섬유정보센터의 전문가에 의하여 정보의 선정과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산업체에 대한 이상적인 정보서비스라 할 수 있다.

TEXIS 시스템에는 '섬유류 수출입 통계정보', '국내 섬유업체 현황정보', '국내외 섬유 전시회 정보', '국내 섬유업계 인사록 정보', '섬유관련 문헌정보', '섬유 간행물 기사속보'등의 데이타베이스로 운영되고 있다. '섬유관련 문헌정보'에는 WTA(World Textile Abstract)와 TTD(Textile Technology Digest)데이타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섬유분야의 경제, 무역, 정책, 기술, 특허 등의 정보가 수록되고 있다. 또한 패션정보를 디자인 작품, 디자인 이론서, 이벤트 정보,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III. 현장 중심의 정보서비스 체제

산업체 독자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수,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정보원의 정보서비스 활동, 산업분야별 협회나 조합에 정보서비스 기능을 부여하는 조치, 산업지원기관의 주요 업무에 정보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규정 등이 국가의 산업정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는 산업현장의 정보요구가 충분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산업지원기관이 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업무

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정보서비스에 담겨지는 현장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 본다.

1.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22]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는 설립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세계 시장의 급격한 변화속에 지역 기업체의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산 현장 및 연구 현장까지 전달하여 정보수집에 대한 소요시간과 인력, 경비의 낭비를 줄이고 기술개발의 성공률을 높여 외국기업과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설립하였다.'

정보센터는 1994년 구미시의 재정지원과 금오공과대학의 기술 및 운영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구미시에 소재하는 기업체에 각종 산업정보를 무료로 지원하며 또한 기술지도와 정보화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설립 후 매년 구미시에서는 2-3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회원은 기업체 267개처, 교육기관 15개처, 유관기관 34개처 이다. 회원기관이 '97년까지 이용한 실적은 산업기술전문도서 4902건, 국가공업규격 846건, 종합정산망 1,422,086건, 검색대행 585건 등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KS, ISO, JIS, DIN, ASTM 등 규격자료와 국내 산업기술도서 4211권, 외국 산업기술도서 523권, 정기간행물 57종, CD-ROM등 123점을 구비하고 있다.

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원은 산업기술정보원의 KINITI-IR, 연구개발정보센터의 KRISTAL,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ETLAR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KOTIS, 행정자치부의 CAIS, LG정보통신의 GINS,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은행(SMDB), 한국전력의 KIS 등 이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정보사이트를 검색할 수도 있다.

정보센터가 펴낸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기술도서, 공업규격, 종합전산망 등 정

22)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97년도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종합보고서** (동 정보센터, 1998. 1)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KICIT 이용안내서** (동 정보센터, 1997)
http://kicit. kumoh. ac. kr

보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한다. 정보센터가 제공한 정보의 이용으로 신제품 개발, 제품개선, 장치제작, 특허획득, 인증획득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도움을 준 사례도 '95년 58건에서 '97년 415건으로 증가되었다고 한다. 구미시가 수상한 콘라드아데나우어상('98. 4. 20)의 수상 이유에도 정보센터의 활동이 돌어 있다.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산학연협력체제 구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를 내세우고 있다.(http://202. 31. 128. 81~sanhak/)

2. 기계 · 재료기술정보센터[23]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유통의 정책방향에는 과학기술정보의 전국적인 공동활용체제를 확립하고 지역간 균등한 정보활용 여건조성 및 지방 기업체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초고속과학기술전산망 구축 및 과학기술 지역정보화사업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정보화사업은 중점과제로 설정되어 매년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지역정보화 사업은 국제화, 지방화 시대의 전개와 함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국 주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정보망을 구축하여 지역내 기업간의 정보교류의 촉진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 혁신대책 기반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정보화 1단계 사업으로 '94년에 착수한 창원 · 마산 시범사업이 3차년도로 완료되었으며, '94년 9월에 개통된 지역기술정보유통망(RIN-Net)에 '96년말 기준으로 500여개 기업체가 가입하여 정보서비스를 받고 있다.[24]

기계 · 재료기술정보센터의 사업 목적은 창원 · 마산지역의 기업체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정보유통망의 구축, 운영과 개발된 지역정보화 기술을 전국 유사 공단지역의 정보화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광주권과 대전 · 충남권의 지역정보화사업은 창원의 모델을 적용한 사례이다. 이 사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23) 전창배, "창원 · 마산 지역정보유통망 구축", **문헌정보인의 맥**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9집 (1996. 11) 7-27쪽.
전창배, "한국기계연구원 기계 · 재료 기술정보센터", **정보관리연구**, 28권 1호 (1997. 3) 80-106쪽.

24) 과학기술처, **'97 과학기술연감** (1998. 2) 과학기술처, 115쪽.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체의 정보요구와 전산환경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정보유통망을 구축한 것이다. 정보서비스 유형을 유통망서비스와 기술정보부가서비스로 나누어 수행할 정도로 정보통신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 사업 담당자가 설명하고 있는 사업 목표를 보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기계·소재분야의 최대 공업단지인 창원·마산지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핵심 기술정보를 수집,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지역통합 VAN을 통하여 적기에 제공하는 유통망 구축과 동시에 기술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수행'이 사업목표라는 것이다.[25] 지역정보협의회 또는 정보담당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교육 프로그램인 인터넷 교육, 정보검색 교육, 현장방문 교육 등을 통해서도 정보요구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기계·재료기술정보센터의 산업체에 대한 정보서비스는 기술정보서비스와 통신기술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기술정보 데이타베이스 서비스, 정보조사와 원문서비스,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알선 등의 서비스는 전자의 범위에 속하고 인터넷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웹 서비스, 정보교육, 기업전산과 정보환경 구축 서비스는 후자의 서비스 영역에 해당된다.[26]

지역정보화 사업은 산업기술정보원에서도 각 지역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각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 생산제품, 기술인력, 시험연구장비 등의 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하고 정보망을 통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기계·재료기술정보센터의 사업성과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통신기술에다 얼마나 적합한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지가 사업의 과제가 될 것이다.

---

25) 전창배, **문헌정보인의 맥**, 9쪽.

26) http://icomm. kimm. re. kr/common/guide/icomm_guide. html

IV. 결 론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서비스 정책은 60년대의 주장이 그대로 멈추어 있다. 산업기술정보원이 국가 종합정보센터로 산업체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용자가 정보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보원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입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온라인 정보이용 시대에서의 종합정보센터의 정보서비스는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원시정보의 처리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보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서비스이며 또한 아직은 정보기술로부터 얻어낼 수 없는 정보분석 업무의 필요성을 말한다.

산업지원기관의 산업체에 대한 정보서비스는 아직 대부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보서비스 사업이 이들 기관의 주된 업무로 설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산업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집되는 약간의 정보와 기관 자체에서 생산하는 자료 등을 산업체에 제공하는 수준에 있는 기관도 있다. 한편 특정 산업분야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여러 채널을 이용하여 산업체에 제공하는 등 비교적 수준 높은 정보서비스를 하는 산업지원기관도 약간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유형의 산업지원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산업현장과는 멀리 떨어져 위치하며, 현장의 소리는 공식적인 경로를 거쳐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장의 정보요구가 정보서비스로 만들어져 제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산업현장에 위치하며 정보서비스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두 기관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보서비스의 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대학의 기술지원으로 운영되는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한 지역공단의 특정 산업분야인 기계·재료분야의 산업체에 정보서비를 할 목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계·재료기술정보센터이다. 두 기관 모두 정보서비스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업실적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산업체는 정보관리 활동이 약하다고 한다. 개별 산업체의 활동도 국가정

책에서도 산업정보는 크게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제조업은 대략 10단계의 업무를 거쳐 진행된다. 기술정보, 상품기획, 연구개발, 설계, 설비계획, 부품조달, 생산, 판매기획, 판매, 사후관리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우리 제조업은 상품기획과 연구개발은 해외기술의 도입에 의존하였고, 판매 및 사후관리단계는 외국 바이어들에게 기대어 왔다. 우리 손으로 직접 담당하였던 것은 생산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술은 낙타 등의 가장 높은 중앙 부분이고 전반부의 기술정보, 상품기획, 연구개발과 후반부의 판매기획, 판매, 사후관리는 낙타 등의 양쪽 끝과 같이 아직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7]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27) 이면우, **신창조론**, (한국경제신문사, 1998) 79-80쪽.

Information Services for Small and Medium Industry

Yong-Gun Kim *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ing an organizational model for industrial information service applicable to industrial supporting organization in every industrial sectors. Appropriate institutions which provide industrial information would be industrial associations,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s.

The proposed industrial information services could be Kumi Information Center for Industrial Technology (KICIT) and Information Center of Machinery and Materials (ICOMM). KICIT has established in cooperation with the Kumi city and Kumoh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KNUT) supporting the finance and technology management respectively. ICOMM has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Major activities of ICOMM is to provide local companies with better extension services on technology information.

* Professor, Departmen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 Hyosung.